

히고 상감

전통 공예품 중 하나인 히고 상감(히고는 구마모토의 옛 이름)은 철에 복잡한 문양을 새긴 후 은이나 금을 박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녹물을 바른 소재(철판)에 열을 가해 붉은 녹이 슬도록 만든 후, 찻물(탄닌)에 끓여내 녹을 방지하는 과정을 통해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는 색상을 만들어 냅니다.

상감은 본래 유럽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기술로 17세기 초, 호소카와 다다오키(1563-1646)가 오미국(지금의 시가현)에서 데려온 대장장이 히라타 히코조를 시작으로 인기 공예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지역 금공 장인들도 기술을 갈고닦으며 무사에게 헌납하기 위해 상감 장식을 새긴 총신과 칼날, 담뱃대 등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변화

1876년에 메이지 정부가 칼을 차고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도령(廢刀令)을 내리면서 수 세기에 걸쳐 무사들에게 부여되었던 특권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히고 상감은 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을 잃게 되면서 장인들은 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마모토에서는 지금도 약 15명의 히고 상감 장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커프스 버튼, 넥타이핀, 펜던트, 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히고 상감을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히고 상감 기법을 활용한 만년필을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또한, 2019년 구마모토에서 개최된 제 24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수여된 메달에는 히고 상감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히고 상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마모토현 전통 공예관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구마모토성 인근 전통 매장에서는 워크숍도 개최합니다.